

해남 북일지구 수계연결사업 첫 발

매년 200ha 가뭄피해...2025년까지 353억 투입 500만㎡ 고천암호 농업용수 공급...주민숙원 해결

해남군 북일면 일대 가뭄해소를 위한 수계연결 사업이 첫 발을 댔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북일지구 농업용수 수계연결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일정 등을 점검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북일면 또한 해마다 200ha의 농경지에 가뭄피해가 발생해 농민들간 다툼이 이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절실했다. 위치상 두문산 오른쪽에 있고, 평야지대로 이뤄진 북일면은 저수지를 신설할만한 부지가 없어 그동안 소규모 저수지와 관정만을 사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이에 군은 여유수량이 풍부한 고천암호의 물을 관로를 통해 북일면으로 공급하는 수계연결사업을 추진, 명현관 군수 등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찾아 지속 건의한 결과 지난해 353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

면서 속원을 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수장과 17km의 송수관로를 매설해 북일면 운전저수지와 신월저수지, 만수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군은 착수보고회에 이어 올해 중 기본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500만㎡에 이르는 고천암호 농업용수를 북일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일면 일원 942ha 농경지에 항구적인 가뭄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은 2025년 완료될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해남=박병태 기자

보고회에서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계획중인 58ha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과 북일면 삼성 저수지,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호 일원도 수계연결사업에 포함해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것도 건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오랜 군민 염원이 되어 온 북일지구 가뭄해소를 위한 수계연결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 탑승지 전경. /강진군 제공

강진 가우도 추석 연휴 관광객 발길 늘어

모노레일 이용객 4,500명 돌파...15% 증가

강진의 대표 관광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우도가 최근 새로 개통한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효과로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수가 약 15% 증가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가우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가우도 모노레일'은 지난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객 4,500명을 돌파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약

3,2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길이 150m의 진짜 출렁이는 '가우도 출렁다리'는 탁 트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우도 돌레길 코스와 연결돼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짜릿함과 재미를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우도 모노레일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 가우도 쪼트랙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이용객이 잠정 집계 1,300여 명을 기록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체험의 섬'에 선정된 비대면 힐

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독특히 보여주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 힐링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가우도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 거리를 연계해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발맞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와 생활 방역 체계를 수립하여 가을철 관광객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완도, 기초생활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이며, 군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도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2,013가구로 지난해 12월 1,428가구 보다 585가구(4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최규욱 기자

"오시아노 해변서 뮤직페스티벌 즐겨요"

해남, 내달 2일 뷰티풀 캠핑 콘서트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치유와 행복의 뮤직페스티벌(사진)이 열린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10월2일 오시아노 관광단지 해변에서 '뷰티풀(beauty-fall) 캠핑 콘서트'를 개최한다. 캠핑과 관련된 토크쇼와 음악공연으로 진행되며 하림, 정인, 조연호, 박상돈 등 우리나라 대표 감성과 음악인들이 출연한다. 노을빛이 물들기 시작하는 오후 6시 30분부터 90분간 열리는 콘서트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캠핑과 야외 음악공연을 결합해 치유와 힐링의 분위기가 가득한 오시아노만의 상징성있는 관광 콘텐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람은 49명에 한하며, 해남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연을 중계한다. 한편,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한국의 페블비치'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해변 경관에 골프장, 캠핑장 등 관광



관객을 보유하고 있다. 서남해 거점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1992년 507만 3,000여㎡ 규모 관광단지 지정됐으나 개발이 지체돼 오다가 최근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확보와 한국관광공사 리조트호텔 건립 등으로 활성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공공 어린이재활센터 건립 협약

사업수행기관 목포중앙병원

목포시는 27일 '2021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목포중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승태 목포중앙병원장이 참석해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목포중앙병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장비 구입, 센터 운영에 따

른 필수인력 확보 등 내실있게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목포중앙병원이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일 최 소 5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오는 2024년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아동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적절한 재활치료가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

82명에 8천여만원 지급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최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하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이달 10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총 82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성적 우수(35명), 복지(12명), 다자녀(17명), 다문화(5명), 한부모(4명), 귀농인자녀(2명), 특기자(2명), 장한학생(4명), 명문대분야(1명) 등 9개 분야에 8,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승욱 이사장은 "강진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면서 "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주는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디저트 만들기 교육 호응

무안군은 최근 12개 지역아동센터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꿈을 담은 디저트 만들기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무안자원봉사센터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당대 지역공헌센터와 연계해 호텔조리학과 김양훈 교수가 강의를 맡고 학생들은 자원봉사자로서 교육에 참여했다.

강의를 들은 교사들은 267명의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디저트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제과제빵 분야의 전문가인 김양훈 교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디저트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목포해경, 신입 해양경찰관 전입신고식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제 242기 신입 해양경찰관 11명에 대한 전입신고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용된 242기 신입 해양경찰관 11명(특임 10명, 수사 1명)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15주 동안 경찰서 각 부서에 배치돼 관서 실습 과정을 마치고 신고식 후

최 일선 부서인 경비함정, 파출소 등에 근무하게 된다. 임재수 목포해경서장은 "해양경찰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영암소방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영암소방서는 최근 구림초등학교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한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체험활동은 ▲지진 및 열·역화, 장애물 및 압축 탈출 체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도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상황별 대처능력을 교육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이동안전체험 차량으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침착하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슬기롭게 화재에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적극 활용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내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성 기자